

간호사복의 치수적합성과 디자인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tisfaction in Relation to Size Fit and Clothing Design of Nurse Uniform*

김포대학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김 선 희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강 사 류 은 정

Dept. of Fashion Design, Kimpo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Son-Hee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Part-Time Lecturer : Eun-Jeong Ryou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 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 |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satisfaction in relation to clothing design and size-fit for nurse uniform in Korea. The subjects were 986 female nurses working in 12 hospital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Using SPSS package,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SNK test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2 categories as follows;

- 1) Results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size-fit and size system of the nurse uniforms : Nurses satisfied at the individual size-fit system than ready-made size system. There was a considerable difference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size-fit depending on age and clinical career. And more than half of nurses were needed the concrete and precise size system.
- 2) Results of the actual design condition and clothing satisfaction : Nurses wore two-piece pants suits more than classical designed one-piece style. The princess-line, convertible collar and yoke design were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김포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preferred for nurse uniform with the high satisfaction. 41.6 percent of respondents used the cap obligatory and the white color and a patterned textile were generally used. The used fabrics were only polyester and cotton/polyester mixed spinning.

주제어(Key Words): 간호사복(nurse uniform), 치수적합성(size-fit), 디자인 만족도(clothing design satisfaction)

I. 서론

유니폼이란 일정한 형식에 의해 정해진 일정 양식의 복장으로,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 채택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옷을 말한다. 유니폼은 착용자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게 하고, 단체 내에서의 직위를 나타내 주며, 대외적으로는 단체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착용되는 의복이다. 근대 산업 사회 이후 직업이 세분화되고, 전문적이 발달하면서 일의 종류나 성질,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유니폼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유니폼 디자인은 패션 변화에 비해 전근대적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각 단체에서 관심있게 진행하는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및 패션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1997).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간호행정가의 획일적인 선택에 의한 거의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비효율성, 불만족, 비능률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간호사의 윤리강령에 나와 있듯이 간호사의 복장은 단정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야 하며, 활동적이고 안정감을 주어야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부문의 발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병원들도 시장 경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및 일반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세분화되어 고도의 전문기술을 부각시키게 되면서 간호사복도 이러한 변화를 표현하고, 병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심미성과 상징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복의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간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여 줄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간호사의 연령, 개성과 업무의 다양성 등에 따라 스타일 변화를 주면서 환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이며, 셋째는 소속 병원 및 부서의 상징을 나타내 주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능성과 활동성, 심미성과 심리적 편안함, 상징성 등의 다양한 특성이 내포된 새로운 이미지의 간호사복 개발을 위해서는 구체적, 실제적인 단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간호사복의 치수체계와 디자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치수적합성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를 밝힘으로써, 간호사복의 합리적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유니폼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측정 도구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1부는 인구통계학적 문항들로, 병원명, 병원규모, 지역,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위, 근무 부서, 임상경력, 직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2부는 착용하는 간호사복의 치수 체계 및 치수적합 만족도와 디자인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치수 체계는 예비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중·소의 치수와 개별 맞춤 치수의 명목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선택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디자인 현황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호사복을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를 형태(원피스, 투피스, 바지투피스/캡)와 선(네크라인

과 칼라/ 요크/ 허리절개선/ 프린세스라인), 색채 (흰색, 연녹색, 분홍색, 아이보리색, 하늘색/ 문양의 종류), 재질(100% 폴리에스테르, 면+폴리 혼방, 100% 면,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각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재질의 물리적 기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땀흡수, 통풍성, 구김, 정전기 발생, 내구성, 세탁성 등의 기능성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경기 및 대전·충청지역에 위치하는 12개의 종합 및 준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서울·경기지역에 600부, 대전·충청지역에 45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적합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시킨 524부와 462부의 총 986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for Windows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을 위한 SNK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인 간호사들의 연령분포는 20대가 68.8%, 30대 24.2%, 40대 이상이 6.9%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 66.2%, 기혼 33.7%, 기타 0.1%로 20대 미혼 여성의 분포가 현저하게 높았다. 학력은 고졸 0.5%, 전문대졸 77.7%, 대졸 15.5%, 대학원 이상이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평간호사 79.5%,

책임간호사 9.6%, 수간호사 8.5%, 간호감독 이상이 2.4%였으며, 임상경력은 1년 미만이 14.0%, 1~3년 미만이 26.0%, 3~5년 미만이 17.9%, 5~10년 미만이 11.4%, 15년 이상이 8.7%로 분포하여, 3년 미만 경력의 평간호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간호사복의 치수체계와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1) 간호사복 치수체계

간호사복의 치수체계와 그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현재 착용되는 간호사복의 치수 체계는 84.8%가 '각자 치수에 맞추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 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의 사이즈 체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32.2%이었고, '세분화된 치수 체계가 필요하다'와 '체형별로 구체적인 치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각각 15.2%, 52.6%로 나타나, 전체의 67.8%가 현재의 치수체계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하고 체형에 맞는 치수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치수 체계에 따른 치수적합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개별 맞춤에 대한 만족도가 대·중·소의 치수체계보다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중·소 치수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표 1> 간호사복의 치수 체계 현황과 만족도

(N=986)

문항	항목	빈도	백분율(%)	계
치수 체계	개별 맞춤	821	84.8	968 (100.0)
	대·중·소	147	15.2	
치수 체계 만족도	현재의 치수 체계에 만족	311	32.2	966 (100.0)
	세분화된 치수 필요	147	15.2	
	체형별 구체적인 치수 체계 필요	508	52.6	

<표 2> 간호사복의 치수 체계에 따른 치수적합 만족도

만족도	치수체계	개별 맞춤	대·중·소	t 값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3.14	2.41	8.120***

***p<.001

보아, 다양한 치수를 커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치수 체계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유니폼에서 요구되는 경제성의 측면(신인수, 1983)의 측면에서 개별 맞춤 체계보다 적절한 구분의 치수 체계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복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복의 치수적합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을 위한 SNK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간호사의 연령과 임상경력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대가 40대에 비해 간호사복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임상경력에서도 5년 미만의 경력이 10년 이상의 경력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간호사복의 치수체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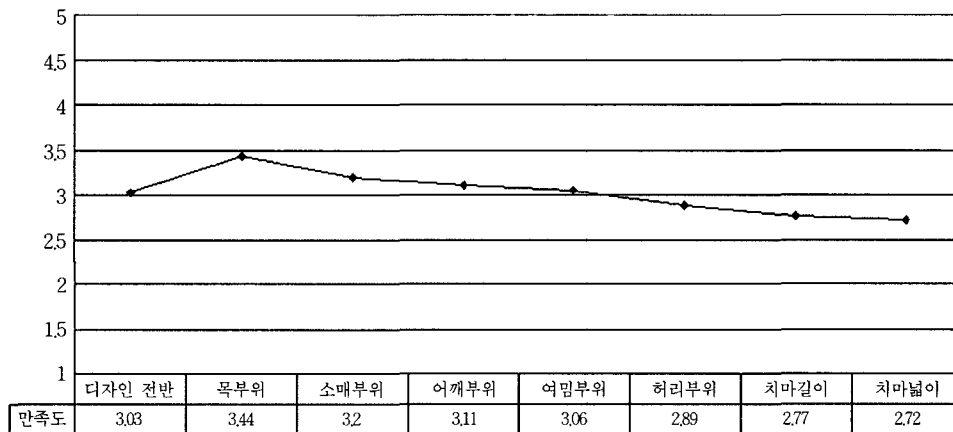
<표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치수적합 만족도

인구통계적 특성	만족도	평균	F 값
연령	20대	2.96 B	5.88**
	30대	3.14 AB	
	40대 이상	3.36 A	
임상 경력	3년 미만	2.92 B	4.81***
	3~5년 미만	2.98 B	
	5~10년 미만	3.10 AB	
	10년 이상	3.24 A	

p<.01 *p<.001 평균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A, B는 SNK test 결과를 문자로 표기한 것임.

3) 간호사복의 부위별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간호사복의 부위별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내려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허리부위, 스커트 길이와 스커트 넓이에 있어서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김정숙 1992) 결과에 의하면 환자 간호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다리로서 동작의 이동이 매우 많다고 하였는데, 간호사복의 스커트는 대부분 타이트나 스트레이트 스커트형이 때문에 그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간호사복의 부위별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2. 간호사복의 디자인 현황과 만족도

1) 간호사복의 디자인 현황

간호사복의 디자인 현황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장 많이 착용되는 형태는 활동성을 강조한 바지투피스형이 58.7%로 가장 많이 착용되고 있었으며, 고전적 형태인 원피스형은 12.7%로 가장 적게 착용되고 있었다.

간호사복의 장식적 요소로 프린세스 라인이 있는 경우가 71.1%로 나타나, 몸에 밀착되는 스타일임을 알 수 있으며, 요크를 이용한 디자인은 41.6%로 나

타났다. 칼라 종류에서는 컨버터블 칼라(48.9%), 만다린 칼라(39%)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53.9%가 간호 업무시 캡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복의 주색상은 흰색이 8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는 아이보리와 연녹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옷감에 문양이 없는 경우가 44.6%를 차지하였으며, 대비색상의 눈에 띄는 문양이 있는 경우가 45.3%를 차지하였으며, 재질은 100% 폴리에스테르와 면/폴리 혼방의 두 종류만 사용되었다.

2) 간호사복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간호사복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위한 SNK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원피스형에 비해 투피스와 바지투피스형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김정

<표 4> 간호사복 디자인 현황 (N=986)

디자인 요소	항 목	빈 도	백분율(%)
형 태	원피스형	125	12.7
	투피스형	266	27.0
	바지투피스형	579	58.7
프린세스 라인	있다	701	71.1
	없다	285	28.9
네크라인/칼라	라운드 네크라인	119	12.1
	만다린 칼라	385	39.0
	컨버터블 칼라	482	48.9
캡 착용	반드시 착용	402	41.6
	대부분 착용	36	3.7
	거의 착용하지 않음	521	53.9
요크	요크 있음	410	41.6
	요크 없음	576	58.4
색 상	흰색	825	83.7
	연녹색	49	5.0
	분홍색	33	3.3
	아이보리색	74	7.5
	하늘색	5	0.5
	없다	440	44.6
문 양	유사색상 문양	99	10.0
	대비색상 문양	447	45.3
	100% 폴리에스테르	444	45.0
재 질	면+폴리 혼방	542	55.0

<표 5> 간호사복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 요소	만족도	평 균	F 값
형 태	원피스형	2.50 B	8.43***
	투피스형	3.00 A	
	바지투피스형	3.08 A	
네크라인/칼라	라운드 네크라인	3.28 B	9.33***
	만다린 칼라	3.23 B	
	컨버터블 칼라	2.65 A	
요크	요크 있음	3.29 A	37.78***
	요크 없음	2.49 B	
색 상	흰 색	2.77 AB	3.31*
	연녹색	2.35 B	
	분홍색	2.94 A	
	아이보리색	2.95 A	
	하늘색	3.00 A	
문 양	없 다	2.30 B	118.46***
	유사색상 문양	3.10 A	
	대비색상 문양	3.16 A	

*p<.05 **p<.01 ***p<.001 평균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A, B는 SNK test를 문자로 표기한 것임.

속 1992)에서 간호 업무시 다리, 팔, 허리, 손목의 순으로 움직임 범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칼라는 컨버터블 칼라가 라운드 네크라인과 만다린 칼라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상의에 요크가 있는 디자인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복은 움직임 때문에 표면에 불필요한 장식물을 부착하는 것보다는 옷감의 재단이나 봉제를 이용한 디테일로 심미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색상에 있어서는 연녹색과 흰색보다는 분홍과 아이보리, 하늘색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문양이 없는 것보다는 문양이 있는 것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간호사복의 색상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다양한 문양들을 사용함으로써 단순조로운 디자인을 보완하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간호사복 재질의 물리적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간호사복 재질에 대한 만족도를 물리적 기능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재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복은 폴리에스테르 100% 또는 면과 폴리에스테르의 혼방제품이기 때문에 세탁성이나 구김이 안가는 성질에는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였으

<표 6> 재질에 따른 물리적 성능 만족도의 차이

물리적 기능 \ 재질	100% 폴리에스테르	면+폴리 혼방	t값
정전기 발생	2.79	2.68	1.907*
세탁성	3.08	2.97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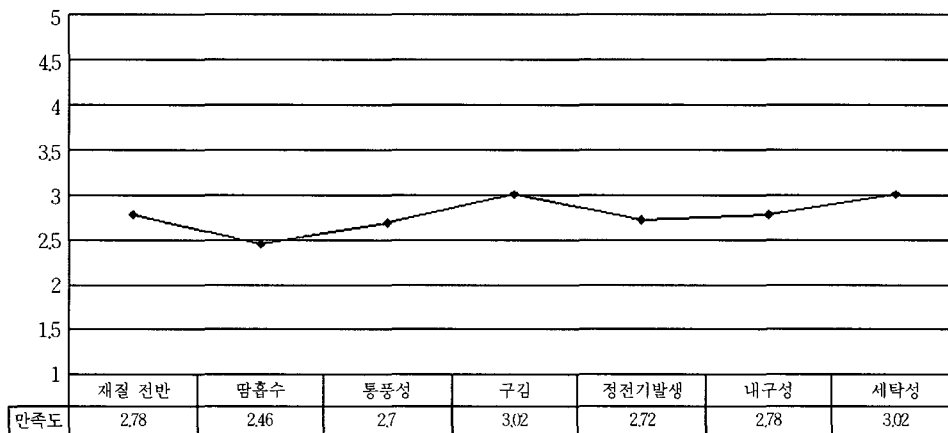
*p<.05

나, 땀흡수와 관련한 흡습성에 있어서는 불만족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 간호사복의 재질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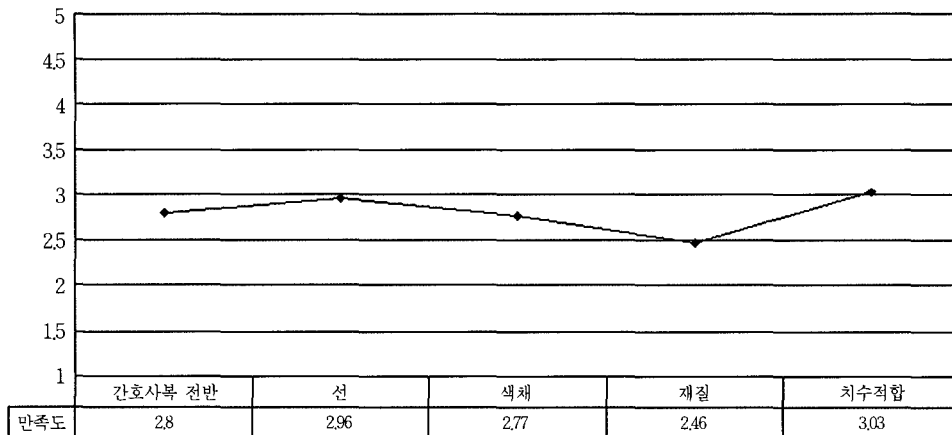
간호사복 재질에 따라 물리적 기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정전기 발생과 세탁성 차원에서 재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100% 폴리에스테르가 면/폴리 혼방제품 보다 정전기 발생이나 세탁성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간호사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간호사복의 치수적합성과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간호사들은 착용하고 있는 간호사복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디자인 만족도보다는 높게 나타났는



<그림 2> 간호사복 재질의 물리적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그림 3〉 간호사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데, 이는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치수체계가 대부분 개별 맞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선, 색채, 재질의 모든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재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간호사복 재질의 물리적 기능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복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며, 쾌적하고 기능적인 재질로의 대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복의 치수체계와 디자인의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사복의 합리적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및 대전·충청지역에 위치하는 12개의 종합 및 준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986부의 설문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간호사복의 치수체계의 현황과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개별 치수로 맞추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대·중·소의 치수체계가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치수적합성

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임상경력이 낮을수록 간호사복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간호사들의 약 70%가 20대이고, 40%가 임상경력 3년 미만임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간호사복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개별 치수에 맞추는 경우 만족도가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이 번거롭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연령별 체형과 치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치수체계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복은 매일 장시간 착용하는 것이므로 위생성과 함께 작업내용, 작업량 등을 고려한 기능성이 있어야 하며, 무리한 동작이 많은 간호업무에 적합한 활동성이 요구되므로 간호업무의 내용, 활동량, 동작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여기에 맞는 소매산 높이나 트임 위치 등의 형태와 여유분의 위치와 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간호사복을 설계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간호사복의 디자인 현황과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다 활동성이 좋은 바지투피스형을 많이 착용하고 있었고, 고전적 형태의 원피스형의 착용빈도는 낮으면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린세스 라인이나 컨버터블 칼라, 요크 등과 같은 디테일이 장식적 요소로 많이 이용되

고 있었으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복의 캡은 50% 이상이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캡은 오래 전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의 상징물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그 사용가치가 많이 감소되고, 다른 측면에 대한 흥미와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상 중에서는 흰색이 많았으나, 순수한 흰색보다는 유사색 또는 대비색의 문양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은 100% 폴리에스테르와 면/폴리 혼방만이 사용되었다.

간호사복의 디자인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 간호사복은 유니폼 또는 작업복이라는 인식에서 패션변화에 비해 전근대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신체에 적합한 간호사복을 착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미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간호사들이 선호하면서 감각있는 디자인의 간호사복을 착용한다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만족감에서 서비스를 한다면, 환자들도 유쾌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선호하고 바람직한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것이 패션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으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조화될 수 있는 간호사복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소속과 지위의 상징에서 나아가 병원의 신뢰도,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의 이미지 등을 전달할 수 있다면 경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서울과 수도권, 대전, 충청권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현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비교적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동작적응성이나 직위, 업무내용에 따른 활동성에 따른 간호사복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간호사복으로 바지투피스형이 많이 착용되므로 이에 대한 치수적합성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간협홍보부(1971). 간호원의 이상적인 유형과 몸차

림. 대한간호, 10(5).

김양식(1977). 간호사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섬유기능대학 논문집, 1, 263-276.

김정숙(1992). 간호사의 복장에 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1997). 유니폼 실태조사와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서미아, 이선희(2000). 노년기 남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6).

신인수(1984). 피복위생학. 서울: 경춘사

심순학(1992). 임상간호사의 간호유니폼에 대한 선호경향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경희(1987). 간호원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영복(1977). 간호사. 서울: 수문사.

정연희, 김석범, 강복수(1996). 의사와 간호사의 복장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견해. 영남의대 학술지, 13(2).

Eatrice J. Kalisch & Philish. Kalisch (1985). Dressima for succes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Aug.

Elizabeth M. Janieson, Mary F. Sewal, Eleanor B. Suhrie (1987). *Trends in Nursing*. History Sixth ed., Inid.

Hawkey B. & Clarke M. (1990). Dress sense or nonsense?. *Nursing Times*, 86(3).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MacMillan Co.

Mangum S., Garrison C., Lind C., Thanckeray R., & Wyatt M. (1991). Perceptions on nurses' uniform. *Image*, 23.

Pugh, J. E. (1980). The nurse's uniform(editorial). *The Trained Nurse*, 5.

Sparrow S. (1991).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the nurses' uniform through a period of nonuniform wear on an acute medical war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6.